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李 潤 植

지 자 약 력

- 건교부 기술관리실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최근 경부고속철도의 부실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다만, 시공중에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에 보기도문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외에도 신공항, 신항만, 경전철 등 수많은 SOC사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이와 같은 공공사업들은 과거 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겠다는 사실이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벽한 시설물의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선 건설해 놓고 보자는 식의 표본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즉, 적은 공사비, 짧은 공기 등이 바로 사업의 효과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까지 소모된 유지보수비가 당초 건설비의 몇 배가 넘고 있는 현실과 이로 인한 이용의

불편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방식은 잘한 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 보아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경제효율만을 내세운 건설방식은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건설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오늘날에 와서도 구태의연하게 반복되고 있는 듯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동안 건설환경이 달라진 만큼 여기에 발맞춰 모든 공공사업의 결정, 추진, 절차 등이 과거 경부고속도로 때와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공공사업은 구상단계, 사업확정단계, 설계, 사업비 확보, 계약, 시공, 그리고 완성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사업효과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건설사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행절차가 무시되는 사례가 적지않다.

즉,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만을 중시하고 적은 투자비로 조속히 사업을 완수하려는 성과위주의 풍토는 불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 이로 인한 불합리한 사업계획 수립, 무리한 공사추진 등으로 이어져 부실공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공공사업을 둘러싼 관계부처간,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배려 등 외부요인들에 의해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 공기지연 또는 과도한 공기의 단축요구는 투자효율을 저하시키고, 완벽시공과 기술발전의 중대한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

모든 공공투자사업은 국가전체적인 시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기대효과, 대안을 비롯한 타당성, 투자예산의 확보방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공기술, 환경영향평가 등 충분한 사전검토는 물론, 국토의 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후에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 시행이 결정된 후에야 기본적인 조사사업이 시작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소한 100년이상 사용해야 하는 국가기간시설의 건설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두가 흐트러지는 것처럼,

사전조사가 미흡하면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올 수 없고 시공 역시 부실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은 노임단가와 공사비 적산체계에 의한 예산편성, 현장여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설계 등 부실시공의 발생 소지는 시공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하고, 기술인과 기능인의 프로근성과 장인정신이 강조되어야 하며, 선진기술과 정보를 끊임없이 습득하고 연구개발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초적·기본적 조사를 충실히 거친 후에 설계에 들어가는 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겠다.

계획은 사전에 철저히 하고 실행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기술이 예술로 승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노력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예술품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기술자로서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